

<2022년 9월 7일 수요일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22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29절]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끝까지 하라’는 말씀은

<환란을 당하며 미움과 어려움을 받고
참으로 어떻게 하나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구 자막1> <요한복음 8장 28절>

『28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끝까지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령으로 감동 되어 하신 말씀
성자가 함께 하신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권세 있고 세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 이 말씀은

<사탄>을 이기고, <미워하는 자>를 이기고
<악한 자들>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 ‘끝까지 하라’ 는 말씀을 분석해 보면
‘목적을 달성하였다’ , ‘완전히 했다’ ,
‘더 할 것 없이 다 해버렸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보면

‘끝까지’ 하면, 삼위가 원하시고 예수님도 원하시는
최고의 것이 이뤄진다는 말씀입니다.

- ‘최고의 것’ 이란 ‘구원’ 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구원 받으면 일생동안 살 수 있고,

<영>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영이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종교적으로 말할 때 ‘구원’ 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크지만

영이 ‘사망권에서 살아나서 생명권으로 옮겨지는 것’ 같이
큰 것도 없습니다.

<육>이 살아나면 ‘육신 일생’ 살게 되고

<영>이 살아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힘든 고비’ 가 있습니다.

모두 해결하면서 주와 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 <육>도 <영>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끝까지 하라’는 깊은 뜻은
끝까지 가면 <사탄>도 <악한 자>도 없고,
<삼위일체>와 <주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사탄과 악은 끝까지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과 <사탄>에게는
절대 ‘끝까지 가는 권세’를 주지 않으십니다.

- 끝에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구원자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라는 절대적인 말씀’을
오늘 밤도 예수님은 사명자를 통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 끝까지 하기를 매일 기도해주니
끝까지 하기를 축원합니다!

- 과일과 각종 열매와 곡식들도 끝까지 성장하여야
맛있고, 영양분을 100%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먹어야 튼튼하고 건강하게 됩니다.

- 세상 만사 모든 일은 작으나 크나
끝까지 해 버릇하여야 됩니다.

일을 대강 하고, 끝까지 안 하고 90% 정도만 하다 말고,
일의 끝 마무리를 안 하고 마는 자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하여 아름답게 해버릇 하는 자들’ 이 돼야 되겠습니다.

- 말씀 듣고 끝까지 행하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하라’ 는 금주의 말씀을 듣고,
〈선생〉이 〈예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러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2년 전〉에 운동장 옛날 생가 터 앞에 큰 소나무 심을 때,
‘바닥에서 물이 나는 것’ 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에다 3미터 짜리 통을 세워서 묻고
두레박 샘을 만들었으나,
심은 소나무 밑에서 오염된 흙 물이 흘러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연구를 하던 끝에
배수로 관을 연못 감나무 밑까지 연결해서 샘을 안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오면서, 옛날 논바닥을 거쳐 흘러오니
또 오염 되어 먹을 수가 없었고,

‘사용하는 물’ 로만 쓰게 됐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 금주에 ‘끝까지 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샘>이 다시 생각나서
섭리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게 ‘끝까지’ 하겠다고
예수님도 성령도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옛날 초가집 생가 터,
지금 ‘기념관 산쪽 바위 밑에 위치’ 를 정해주며
“여기다 기계로 물 구멍을 뚫어라” 하여 뚫었더니
5m 아래 반석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름다운 샘’ 을 기어이 만들었습니다.

바위를 뚫었기에, <다른 오염된 물>이 들어가지 않고
‘깨끗한 물’ 이 나옵니다.
‘기도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 입니다.

하루 만 명 이상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약수 샘 다음으로 ‘깨끗한 물’ 입니다.

<위치>가 아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운동장 중앙 옛날 생가 위치 산 쪽’ 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였더니, ‘아름답고 예쁜 샘’ 을 만들어
섭리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면 이같이 ‘표적’ 이 일어납니다.

항상 보면, ‘끝까지 하지 않은 것’ 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그 동안 해 놓은 것’ 까지 피해를 보는 일을

모두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행해야 됩니다.

끝까지 <막을 것>을 막고,

<세울 것>을 ‘월명동 돌’ 같이 세우고,

<버릴 것>을 ‘쓰레기’ 같이 버리고

<할 일>을 절대 해야 합니다.

<각종 모든 것>은 모두 ‘끝’ 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여야 ‘목적’ 을 달성하여 ‘희망’ 을 이루고

‘끝까지 행한 보람’ 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끝까지 안 하면> 과거 수고가 ‘헛수고’ 로 끝나고,

‘손해’ 만 가게 됩니다.

특히,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행하며 관리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처음에서 나중’ 까지 읽고

<기도>를 하여도 정한 시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선생>은 ‘골프차 사고’ 가 나고서,

시간을 꼭 지키며 기도하겠다고 하고

11개월 동안, 322일 동안 1초도 어기지 않고
하루 <3번씩> ‘끝까지 기도’ 했습니다.

- <전도하는 것>도 끝까지 하면 전도 됩니다.

- <말씀>도 마음 정신 생각 집중하여 ‘끝까지’ 들어야
무슨 말씀인지 <자신>도 깨닫고,
<성령님>도 더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 ‘끝까지 하는 자’ 는
예수님도 사명자와 함께 손을 잡고 이끌어줍니다.

‘끝까지 하는 것’ 을 아예 저마다 ‘목표’ 로 삼고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끝까지 하면 누구나 잘 됩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선포 하였으니,
행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의심할 것’ 도 없고, ‘확인할 것’ 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 동안 힘들어도 각종 일을
‘끝까지 한 것’ 은 결국 잘 되었습니다.

- 특히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며 <영>이 영원히 잘 돼야 됩니다.
<끝>에 가서 ‘승리의 황금의 때’ 를 만납니다.
육계도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끝〉에 가야만 ‘가장 이상적인 것’ 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행하기입니다.

- ‘구원’ 은 〈구원을 시키는 사람〉도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여도
사람들을 구원시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숨을 내주고,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구원’ 을 시켰습니다.

- 〈구원 받는 사람들〉도 구원 받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시대 역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구원 받는 자들〉도 구원 받기 쉽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자〉는 자기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매일 귀하게 여기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 선생이 쓴 1200페이지 구원론에는
구원이 정말 힘들다고 썼습니다.
모두 읽어봤습니까?

-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절대 관리’ 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매일 삼위체와 자기를 구원한 예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신부의 도리를 다하며,
책임을 다하며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 <구원받은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자>가 ‘이 시대 휴거 된 자’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고 사명자와 일체 되어 사는 자
새 역사 천년 꿈을 실행하며, 신부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삼위일체와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와 일체되어
이 시대 구원을 받으라.
받은 자 끝까지 견디어라!

- <이 말씀>이 ‘섭리인들에게 해당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을 가르쳐 주시고, 혼자 두지 않고,
<영>이시니 ‘신부 육신’ 쓰고 전해줬습니다.

- <지금>도 ‘사명자’ 쓰고 행하십니다.

지금껏 따라오면서 선생과 같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참고 견디며 승리하고 왔습니다.

- 저마다 과거 환난 핍박 미움 받은 것들을
그 누구는 몰라도 ‘자기’는 잘 압니다.

‘악몽 같은 끔찍한 일들’을 겪고 왔습니다.

정말 <선생>도 과거에 눈물의 강을 띄우며
긴긴 세월 괴롭과 고통을 받고 왔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왔습니다.

삼위체와 구원자는 나를 꼭 잡고 왔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고, 그 후에 ‘각종 축복’을 주었습니다.

• 섭리인들도 모두 각종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참고 견딜 것’도 많고 ‘받을 축복’도 많습니다.

삼위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같이 견디고 신앙을 지켜 왔기에
이 시대 신부가 되고 이상세계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 해당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최고의 신앙자들’입니다.

• 현재의 SS 중고등부들과

과거 중고등부 부터 위축감도 많고, 두려움도 많이 타고
약한 어린 때이건만 그 무서운 환난 핍박과, 미워함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온 자들도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성장하였으니 그때를 생각하면서
더 담대하게 ‘신앙의 신부 영웅들’이 되어서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 모두 지난 날도, 지금 현재도

위대한 삶을 살아온 섭리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도 예수님도 시대 사명자도 잘 했다고 하시며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다. 말씀 지켰으니 ‘축복’을 해준다.
너희가 받은 환난에 비해 ‘축복’은 너무나 크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노니
끝까지 전디는 너희 책임을 꼭 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6절~29절>을 보면,

<성구 자막2> <요한계시록 2장 26-29절>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가지고
질 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해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받았다’ 고 하였습니다.

‘이기는 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 <새벽별>은 ‘예수님’ 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그에게 준다는 말씀’ 입니다.

-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는자에게
‘아들의 권세’ 를 주셨고

<이 시대>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은자에게
‘신부의 권세’ 를 주십니다.

선생도 옛날에 열심히 환난 핍박을 받고,
다른 자들로 미움을 받고도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꿈에 ‘흰 돌’ 을 주어 받고, ‘새벽 별’ 도 주어 받았습니다.

<흰돌>도 ‘예수님’ , <새벽 별>도 ‘예수님’ 이었습니다.

- 구원을 받고 신부들이 되었으니
이 시대급의 구원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치를 깨닫고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며,

삼위일체와 구원해주신 예수님과 사명자를 생각하며
매일 ‘자기 신앙관리’를 잊지 말고 해야 됩니다.

- <기도>하면서 관리하고,
 <말씀>을 깊이 듣고 행하며 관리하고
 <삼위일체>와 자신을 구원해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사명자>와 일체 되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같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1. 교역자들 천천히 말씀하고
2. 강약 설교하고 힘있게 해야 능력
3. 본문 말씀 근본을 깨닫고 하고
4. 제스처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눈높이로 손 올리고 하기